

12일 WBL 올스타전...사상 첫 부산행



2019~2020시즌 여자프로농구 올스타전이 12일 부산 BNK센터에서 열린다. 부산에서 열리는 첫 올스타전에 맞게 역대 최초로 농구팬이 각 팀의 12번째 선수로 경기에 나서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2018~2019시즌 올스타전에서 그를 리임소다와 함께 공연한 신지현, 홍소리, 이주연, 나윤정(뿔 왼쪽 위부터).

팬들이 12번째 선수 올스타와 함께 댄스

TV·냉장고·스타일러 등 경품 푸짐 11일엔 '올스타 스킨 여객' 이벤트

여자프로농구 올스타전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2일 부산 BNK센터에서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올스타전을 개최한다. 1998년 여자프로농구 출범 이래 부산에서 올스타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올스타전은 팬 투표로 선발된 22명(팀당 11명)의 선수가 핑크스타와 블루스타로 나눠 펼쳐진다. 핑크스타에는 4년 연속 최다 득표에 빛나는 김단비(신한은행)를 비롯해 박지수(KB스타즈), 박지현(우리은행), 안혜지(BNK), 신지현(KEB하나은행)이 베스트5로 나선다. 블루스타는 강이슬(KEB하나은행), 김한별(삼성생명), 박혜진(우리은행), 한혜진(신한은행), 강이정(KB스타즈)이 베스트5로 선정됐다.

그밖에 염은아(KB스타즈), 고아라(KEB하나은행), 노현지(BNK), 카일라 쏘튼(KB스타즈), 엘레나 스미스(신한은행), 비키 바흐(삼성생명·이상 핑크스타), 김소니아(우리은행), 배혜윤(삼성생명), 김이슬(KEB하나은행), 르산다 그레이(우리은행), 마야사 하인즈-알렌(KEB하나은행), 다미리스 단타스(BNK·이상 블루스타)가 벤치멤버로 출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올스타전 최초로 팬이 각 팀의 12번째 선수로 경기에 나선다는 점이다. 3일 핑크스타 주장 김단비, 블루스타 주장 강이슬이 선발된 팬 이혜수(핑크스타), 임수빈(블루스타) 씨가 선수들과 함께 올스타전 코트 위에 선다.

올스타전 하루 전인 11일에는 부산지역의 대신초등학교, 동주여자중학교, 동주여자고등학교를 올스타 선수들이 찾아가 '올스타 스킨어택 in 부산' 이벤트를 펼친다. 선수들은 학생들과 레크리에이션, 게임 등을 함께 할 예정이다.

경품도 푸짐하다. 올스타전 경기 후 입장 관중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형 UHD TV, 냉장고, 스타일러 등 고급 가전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정지욱 기자

2019~2020 WKBL 신인 드래프트



9일 인천 하나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WKBL 신인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새내기 선수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아하게 교복을 입고 참석한 선수들이 아름답고 멋있다. 이날 최고 주인공은 KB스타즈가 1순위 지명권을 얻어 선택한 여고농구 최고 가드 허예은(상주여고·앞줄 왼쪽에서 4번째)이었다.

4.8% 확률 뚫은 KB, 최고가드 허예은 득템

(KB스타즈)

(상주여고)

한 개뿐인 KB 초록색 공 먼저 나와 환호성 지른 안덕수 감독 허예은 호명작년 이어 1위팀 1순위 지명 기현상 신한은행은 교포가드 김애나 선택

'2019~2020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신인선수 선발회(드래프트)'가 펼쳐진 9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 캠퍼스 KEB하나은행 구단 체육관.

지명순이 추첨을 앞두고 적막이 흐르다 갑자기 "와!"하는 함성이 터졌다. 추첨기를 통해 가장 먼저 정주 KB스타즈의 초록색 구슬이 밖으로 나오자 KB스타즈 안덕수 감독(46)의 환호성이 적막을 깼다. 1순위 지명권을 얻은 순간이었다.

순위 추첨 후 선수 지명을 위해 단상에 오른 안 감독은 여자고교 최고의 가드인 허예은(상주여고·165cm)의 이름

팀(지명 순)	1라운드 선수(출신고)	2라운드 선수(출신고)
KB스타즈	허예은(상주여고)	최윤선(수원대)
신한은행	김애나(Cal.St Univ)	고나연(분당경영고)
BNK	엄서이(춘천여고)	유승연(송의여고)
KEB하나은행	정예림(송의여고)	강유림(광주대)
우리은행	오승인(청주여고)	김해지(용인대)
삼성생명	최서연(Bellevue HS)	이수정(청주여고)

* 2라운드는 1라운드 역순으로 지명

을 호명했다.

2019 국제농구연맹(FIBA) 19세 이하(U-19) 여자농구 월드컵에 출전해 인상적인 기량을 뽐낸 허예은은 각 구단이 눈독을 들인 유망주다. 가드 보강이 절실한 KB스타즈는 누구보다 허예은을 원한 팀이었다. 안 감독은 드래프트 이전부터 "1순위 지명권이 주어지면 무조건 허예은을 뽑을 것이다"라고 주변에 이야기 할 정도였다.

KB스타즈는 허예은을 뽑기 위해 많

은 공을 들었다. 지난해 여름 인천 신한은행에 센터 김수연(34·185cm)을 내주는 대신, 드래프트 우선 지명권을 얻었는데 이는 허예은을 선발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팀인 KB스타즈는 드래프트 추첨 구슬 21개 중 단 1개만 얻을 수 있었지만, 트레이드를 통해 지난 시즌 최하위(6위) 신한은행의 구슬 6개까지 거머쥐었다. 순위 추첨에서 KB스타즈는 초록색 구슬, 신한은행은 흰색구슬을 썼다. 순위 추첨에서 흰색 구슬이 먼저 나올 경우, 1라운드 지명에 한해 KB스타즈가 우선 지명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의 지명권 교환 여부와 상관없이 '유일한' KB스타즈의 초록색 공이 4.8%의 확률을 뚫고 가장 먼저 추첨기 밖으로 나오면서 KB스타즈는 간절히 원했던 허예은을 지명했다.

WKBL 드래프트는 지난해에 이어 가

장 적은 4.8%의 확률을 가진 정규리그 1위 팀이 1순위 지명권을 얻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지난해에는 아산 우리은행이 1순위로 박지현을 선발 한 바 있다. 1순위로 KB스타즈에 지명된 허예은은 "뽐아주신 KB스타즈 구단에 감사드립니다. 프로선수로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선수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순위 지명권을 얻은 신한은행은 교포가드 김애나(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롱비치·164cm)를 지명했다. 2017년부터 WKBL 입성을 추진해 온 김애나는 "교포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톨을 바꿔 주셔서 감사하다. 최선을 다해서 신한은행에서 우승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신인 선수들은 1월 15일부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인천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아버지 허재가 갈라놓은 '올스타전 형제의 난'

허훈이 4~5순위쯤 뽑으려 했는데 김시래팀 멘토 허재가 먼저 지명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1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스타 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부산 KT 허훈(25)과 2위에 오른 창원 LG 김시래(31)가 드래프트로 각자의 올스타 팀을 구성했다. KBL은 9일 이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허훈 팀'에는 허훈을 비롯해 김종규(원주 DB), 김준일(서울 삼성), 정희재(LG), 김낙현(인천 전자랜드), 라건아, 송교창, 이대성, 이정현(이상 전주 KCC), 박지훈(안양 KGC), 김현민(KT), 김국찬(울산 현대모비스)이 선발됐다. 이에 맞서는 '김시래 팀'에는 김시래를 필두로 허웅(DB), 이관희(삼성), 김동량, 캐디 라렌(이상 LG), 김선형, 전대풍, 최준용(이상 서울 SK), 이승현(고양 오리온), 양홍석(KT), 리온 윌리엄스, 양동근(이상 현대모비스)이 포함됐다.

김시래와 허훈은 지난 2일 한 스튜디오에서 올스타 팀 구성을 위한 드래프트 촬영을 했다. 김시래의 멘토는 허훈의 아버지 허재 전 감독이었다. 허훈은 김유택 해설위원과 호흡을 맞춰 선수를 지명했다.

눈에 띄는 몇몇 대목이 있다. 김시래는 팀 동료 정희재를, 허훈은 양홍석을 같은 팀으로 선발하지 못했다. 또한 김시래는 KCC 선수들을 한 명도 뽑지 않았고, 허훈은 SK 선수들을 전혀 지명하지 않아 눈길을



DB 허웅(뒤)과 KT 허훈(앞)이 올스타전에서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다시 한번 '형제 맞대결'을 펼친다. 올스타 팬투표 1위를 차지한 허훈은 허웅의 선발을 고려했지만, 2위 김시래의 멘토이자 형제의 아버지인 허재 감독이 한발 앞서 "허웅을 지명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전언이다.

스프츠동아DB

끌었다. 특히 허훈은 형 허웅과 이번에도 같은 유니폼을 입지 못했다. KT 관계자는 "허훈이 4~5순위 정도로 허웅의 선발을 고려한 것으로 아는데 김시래의 멘토 허재 전 감독이 한 발 앞서 허웅을 지명하지는 의견을 내면서 형제가 올스타전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2위 내려온 문경은 감독 "1위병 때문에..."

(SK 감독)

"느슨해진 수비...내 책임이 크다" 반계임차 2위 불구 정신무장 강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2·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를 질주한 서울 SK(19승11패)는 4라운드 들어 안양 KGC(20승11패)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고양 오리온, 창원 LG, 울산 현대모비스에게 연패를 당한 탓이다. 그렇다고 순위가 크게 밀린 건 아니다. 9일 현재 KGC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0.5경기차 2위를 달리고 있다.

SK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까지 세 경기 승부가 중요하다. 10일 홈에서 3위 전주 KCC와 격돌하고, 12일에는 허훈이 합류한 부산 KT를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15일에는 원주 DB와의 원정 경기가 예정돼 있다. 중위권에서 선두권을 추격중인 세 팀과의 대결에서 최대한 많은 승수를 챙겨야 가장 높은 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

SK 문경은 감독은 "오랜 기간 1위를 달리면서 나도 선수들도 안주한 게 아닌가 싶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1위병에 걸렸다'고 했다"며 "그 동안 벌여놓은 승수를 많이 잃었다. 나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경기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기술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 문 감독은 "3연패 과정을 보면 상대에게 많은 점수를 내줬다. 팀이 좋았을 때의 수비력이 나오지 않는 등 다소 느슨해졌다. 선수들



문경은 감독이 이끄는 SK는 9일까지 KGC에 0.5게임차 뒤진 2위다. 문 감독은 오랫동안 지켜온 1위를 내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스타브레이크 직전 맞붙는 KCC~KT~DB와 3경기를 통해 심기 일전하겠다는 각오다.

스진재 기자 KBL

을 그렇게 만든 내 책임이 크다"고 자책했다. 이어 "코트 위에서 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격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장점은 속공이다. 더 적극적으로 뛰고, 움직여야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며 "3연패 후 팀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문 감독은 "앞으로 중위권 세 팀과 맞파라 만나는 스케줄이다. 이 경기들을 잡으면 팬층을 짓으로 본다. 팀이 위기인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최용석 기자